

홍영철 시인, 스승의 책 '삶의 한순간을' 재출간



살레시오 교사를 지낸 고(故) 임기석 선생이 생전에 발간한 '삶의 한순간을' 재출간 기념회가 지난 28일 비움박물관에서 열렸다. <사진> 1975년과 76년 두 차례 출간됐던 책의 원고를 매만지고 삽화 등을 추가해 47년만에 새롭게 펴낸 이는 임 선생의 살레시오고 제자인 홍영철(71) 시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냉철한 머리 따뜻한 심성' 등 책에 실린 140여편의 글은 영어교사로 재직했던 임 선생이 아침마다 '오븐 명상'이라는 교내 방송에서 사용했던 원고로 교문을 나서서 졸업생들의 요청에 따라 책으로 발간됐

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살레시오고 동문과 퇴직교사 등 30여명이 참여해 스승을 추억했으며 조우상(팬플렛), 고은영(오카리나)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책자는 살레시오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 씨는 "매일 진행된 오븐 명상 시간을 통해 자연스레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며 "당시 들었던 이야기, 저를 비롯한 졸업생들에게 평생의 삶의 좌표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석 선생은 광주가톨릭대 법철학 교수를 지냈으며 신협중앙회장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목재기공 기술 교류 협약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가 최근 일본 미야자키현 목재이용기술센터(소장 우에노 키요후미), 사단법인 우디즈목재이용연구소(소장강석구)와 편백 등 난대수종 활용 목재가공 선진 기술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미야자키현은 지역산 삼나무를 이용해 돌구멍과 청사 등 공공건축물을 목조화한 선진 지자체다. 특히 이번엔 협약을 한 목재이용기술센터는 일본산 삼나무, 편백 등 목재 건축에 사용되는 가공목재의 강도시험 등을 수행하는 목재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다.

사단법인 우디즈목재이용연구소는 2016년 한일공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여덟 번째 국제 우디즈-시티 컨퍼런스를 주관하

는 등 목재산업화를 견인해온 민간 연구기관이다.

각 기관은 ▲난대수종 목재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목재건축, 목재복합재, 건조기술 개발 재산업 정보교류 ▲국제 학술연구 및 전문학술행사의 공동 수행 등 목재산업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첫 '여성 우수기관사' 탄생

김민지씨 선정...양동석씨도 우수기관사에



광주도시철도 개통 이후 최초 '여성 우수기관사'가 탄생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우수 기관사로 김민지(24·왼쪽)·양동석(32) 기관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민지 기관사는 2004년 광주 도시철도 개통 이후 20년 만에 여성 가운데는 처음으로 우수 기관사가 됐다. 광주교통공사에는 기관사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은 4명이다.

김 기관사는 2020년 공제 9기로 입사해 6만km 무사고를 기록했다. 김 기관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고장조치 분야에서 침착한 총동태와 응급조치를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기관사는 "입사 초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 시스템을 믿고 자신 있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선정된 양동석 기관사는 2016년 공제 5기로 입사해 현재 17만km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으로 꼽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역량강화 현장교육



전남도가 1일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사실조사위원을 포함한 업무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의 유적지 해설로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역사교육의 기회도 가졌다. <전남도 제공>

GA코리아 이재중 이사,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전남대학교병원은 1일 GA코리아 이재중 이사가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31일 열린 전남대에는 안영근 병원장과 이재중 이사, 전남대의과대학 이승록 교수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중 이사는 "전남대병원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것은 물론 광주·전남지역민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새병원 건립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대 김신영씨 학회서 수상 잇따라



조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생 김신영(사진)씨가 열처리공학회, 기계가공학회 등에서 잇따라 상을 수상했다.

김 씨는 최근 '한국열처리공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와 '2023년도 한국기계공학회'에서 잇따라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기계공학회에서는 2023년도 'KSMPE 미래인재상'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창사특집 SBS D포럼 2023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55 2023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10	00 2023 제2차 정책토론회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연인 파트2(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7인의 탈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5 우아한 제국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 2 1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불편해도 괜찮아(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영암도민의날 기념 KBC축하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슈퍼트론 15 다이나믹 파워즈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도시락 스페셜 15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10 202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KT:NC)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제국	05 생방송 영금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홍길동전		
9	00 KBS 뉴스9	45 영화가 좋다 스페셜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00 구해줘! 홈즈	00 SBS 8 뉴스 20 KBC 8 뉴스 4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앤 함께 스페셜	50 아이 러브 스포츠	40 문화콘서트 난장	
12	00 KBS 중계식	15 살림하는 남자들(재)		20 나이트라인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레인보우 버블잼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숲이 그린 집
07:30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오.즐거워라 열대의 낙원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가을은 참 예쁘다 4부 사랑도 사랑가>
08:50 레인보우 버블잼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5 귀하신 몸(재)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2:45 다큐멘터리K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포털리 쇼츠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시간	제목	날짜	연락처
05:0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일(음 9월 19일 甲子)	☎ 010-9790-8237

시간	운세	행운의 숫자
36년생	중간적 한번의 위기가 잘 넘긴다면 뜻을 이루리라. 48년생 부수적인 것을 차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임하라. 60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72년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96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0, 51	30, 51
37년생	길운이므로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49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61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보일 것이다. 73년생 삼사일연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 85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97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23, 56	23, 56
38년생	실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5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62년생 애매하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74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86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한다면 매끄러워질 것이다. 98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73	22, 73
39년생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51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도 오히려 늘 것이다. 63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잡재워야 할 것이다. 75년생 환경이 바뀌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양태이다. 87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99년생 다수인과 만났을 때의 기쁨이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78	12, 78
40년생	가급적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이다. 64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서 대응하라. 76년생 상대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조처한다. 88년생 명예나 재물이 스스로 따르는 흐름이다. 00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야심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61	29, 61
41년생	영광이 따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53년생 곧 익숙해질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5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77년생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난하다. 89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01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4, 84	24, 84
42년생	투명하게 밝힌다면 쉽게 융합될 수도 있다. 54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66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폐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하라. 7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90년생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02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실득력의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21, 80	21, 80
43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55년생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허하다. 67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79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91년생 천성과 습관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03년생 정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1, 79	41, 79
44년생	현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56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하겠다. 68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80년생 가시적인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92년생 소문으로 일컬어지던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04년생 넘치는 기쁨의 경행을 향유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71	38, 71
45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만 있으면 된다. 69년생 준비하는 경향과 치밀성에 따라 성취도가 천양지차 가 될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93년생 급한 결정은 오히려 퇴보시킨다. 05년생 공을 들여왔다면 긴히 활용될 수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00, 96	00, 96
46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부려서는 아니 된다. 46년생 시도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58년생 불만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70년생 제3자로부터 예기치 않은 구실을 들을 수도 있다. 82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리라. 94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행운의 숫자 : 27, 60	27, 60
47년생	바야흐로 길경을 맞이하게 되리라. 47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59년생 생소할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뿐이다. 71년생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 하리라. 83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울 것이니라. 95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35, 74	35, 74